

## ‘증언 전후’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 연구\*

장 수 희\*\*

### 요약

이 논문에서는 김학순의 증언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대중소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중들의 앞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어떻게 시대와 결합하며 만들어져가는지를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흥미거리’도 되었다가, ‘민족을 위한’ ‘정의감’과 ‘사명감’을 띤 이야기로도 나타나며, 때로는 성애적인 상업성파도 결합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를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배제하며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지를 살펴보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생산된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는 특정한 서사가 반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서사를 생산한 작가들의 ‘서문’을 통해 작가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추적하여, 일본군‘위안부’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대중적인 것’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주제어: 대중서사, 일본군‘위안부’, 증언 전후, 1980년대, 1990년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595).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대중서사화의 확대와 반복 재생산
3. 성애화된 민족과 문학적 보복의 효과
4. 성폭력 시스템의 당대적 인식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광복절 37돌의 일주일 후인 1982년 8월 23일에 발간된 『레이디 경향』(No.9)에는 55세 이남님의 「독점수기/나는 일본군의挺身隊였다」가 실렸다. 이 호에는 일제 당시에는 3.1운동에 참가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여자 경찰서 서장을 지낸 전창신의 특별 인터뷰, 오사카 재일동포들에 대한 취재, 식민지 시기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인 아내들이 모여 사는 경주 나자레원에 대한 기사, 미군 기지촌 여성의 생활에 대한 비판과 변호를 하고 있는 「레이디경향 재판정/이 여자의 인생을 묻는다-스티브? 남편? 내가 지은 사랑의 죄」라는 기사도 실려 있다. 일본군 ‘위안부’ ‘여자 경찰서 서장’ ‘일본인 아내’ ‘기지촌 여성’ 등 다양한 위치의 여성들이 해방 후에 살아가는 방식의 면면이 다루어진 것이다.

해방 후 여성들이 처해있었던 다양한 상황들을 대표 기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레이디 경향』만이 아니었다. 『매일경제』에서는 1982년 9월호로 발간된 여성지 전반의 기획을 분석하며 일본과 관련된 기사가 많았다고 보도한다. 특히 이 기사에서는 “대부분 여자 정신대 문제를 어느 만큼은 흥미거리처럼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sup>1)</sup>고 평하였다. 즉 1982년, 대중적 여성지에서 ‘대부분 여자 정신대 문제’를 다루고 있었을 정도로 일

1) 「여성讚」, 『매일경제』, 1982. 9. 2.

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사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대부분의 여성지에서 다루고 있음에도 이는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흥미거리’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앞서 언급된 이남님의 수기는 『레이디 경향』에 독점으로 게재되어 자신이 “일본군의 정신대였다”고 피해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남님이나 이 증언에 관한 다른 언론 매체의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정치적 발언’으로서 파장을 일으키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통속적인 ‘흥미거리’로서 일회적으로 소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흥미거리’로서 소비되었던 일본군 ‘위안부’들은 전혀 다른 장면에서 드러나게 되기도 한다. 같은 1982년의 6월 21일자 『매일경제』에는 부관페리와 관련된 보따리 밀수품을 보도하며, 이를 단속하기 어려움을 전한다. 그런데 보따리 밀수품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제시되는 이유로 “일망타진하기도 곤란한 것은 대개가 50대, 최고 70~80대에 이르는 미혼 할머니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정신대 출신의 재일교포가 많고 금괴나 마약 등과는 관계 없는 만년필 전자제품 의류 등 사소한 생필품을 주로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sup>2)</sup>이라고 기사를 쓰고 있다. ‘정신대 출신’의 여성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이 기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혼 노년 여성이라는 것, 생필품 밀수를 통해 생활을 꾸려간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전혀 ‘정신대’ 여성들을 “흥미거리”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당대를 함께 살고 있는 존재로서 인식한다. 또한 이들은 ‘밀수’라는 불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존재들이다.

이처럼 여성대중매체에 ‘흥미거리’를 위해 실린 일본군‘위안부’의 수기에서는 정신대에 가게 된 경위와 전쟁터에서의 성폭력, 위안소에서의 생활과 전후 슬집을 전전하는 생활이 압축적으로 서술된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편집자가 이남님에 대해 전하는 부분이다. 편집자는 이남님에 대해

2)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매일경제』, 1982. 6. 21.

“그리고는 그녀가 살던 청주를 떠났다. 아무도 모를 곳으로...”<sup>3)</sup>라고 전하며 기사를 끝맺는다. 즉 『레이디 경향』(No.9)은 이른바 ‘정신대’로 불리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수기를 전하고 있지만, ‘위안부’ 이후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무도 모를 곳으로...”라는 말줄임표 속에 삭제한 채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남긴다. 편집부 역시도 이후의 삶에 관해서는 더 이상 취재하지 않고 말줄임표로 남겨둔다. 일본군‘위안부’의 현재의 삶은 대중 매체에서 다룰만한 ‘흥미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1982년을 살고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였던 여성들의 삶은 밀수 기사 속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미혼 할머니들”, 일본에서 들어와 불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sup>4)</sup>해 언제든지 체포하거나 몰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드러난다. 즉 일본군‘위안부’는 어디까지나 민족적이거나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 ‘흥미거리’나 통제하기 곤란한 사회적 ‘골칫거리’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군‘위안부’들이 서사화되면서 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대중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어 생산되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생산된 일본군‘위안부’ 대중소설들은 저널리즘의 상업성과 민족주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뿌리 깊은 여성혐오의 서사로 미끄러지는<sup>5)</sup>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흥밋거리’와 ‘골칫거리’를 활용한 ‘상업성’과 민족주의가 어떻게 영합하여 탈식민의 백래쉬로 작동하는지, 대중서사<sup>6)</sup>의 대량 생산

3) 이남남, 「독점수기/나는 일본군의挺身隊였다.일본군은 내 젊음을 이렇게 짓밟았다」, 『레이디 경향』(No.9), 1982. 8. 23, 105면.

4)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매일경제』, 1982. 6. 21.

5) 이지은,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와 귀항의 거부/실패」, 『사이』 28권28호, 2020, 369면.

6) 린 헛트가 엮은 『포르노그래피의 발명』(책세상, 1996)에서 외설과 현대성의 기원을 논하면서 포르노그래피가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포르노그래피의 역사적 성립은 같이 논의되기도 하는데, 프랑스 인권 선언에 ‘여성’이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포르노그래피’의 역사적 성립이 남성중심으로 성별화된 민주주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린 헛트는 18세기 말부터 포르

속에서 여성혐오는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김학순의 증언을 전후하여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대중소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중들의 앞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어떻게 시대와 결합하며 만들어져가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대중서사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홍미거리’도 되었다가, ‘민족을 위한’ ‘정의감’과 ‘사명감’을 띤 이야기로도 나타나며, 때로는 성애적인 상업 성과도 결합한다. 이는 대중서사 속 일본군‘위안부’를 통해 1980년대와 1990년대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자 대중들의 선호와 배제를 통해 만들어졌던 대중서사가 일본군‘위안부’ 서사를 어떻게 만들어갔는가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을 전후로 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생산된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대중적인 것’으로 다시 만들어지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sup>7)</sup>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 중 특히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을 전후로 하여 생산된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

노그라피가 정치적 함의를 잃기 시작하고 상업성을 중요시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포르노그라피의 성적 도발이 정치적 함의에서 경제적 가치로 그 무게가 옮겨지는 양상은 1980년대 한국 대중문화에서 사회비판적 내용이 검열되는 한편 성애적 표현이 강화되었던 현상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와 한국 사회의 이른바 ‘민주화 이후’라고 불리는 1990년대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시대였음을 감안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량생산되고 대중에 의해 대량 소비된 대중 매체와 그 속에서 ‘홍미거리’로 다루어지던 통속적 서사를 대중서사로 한정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7)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직전과 증언 직후 몇년간이 아니라 증언 전 10년, 증언 후 10년인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다루는 것은 직전과 직후만으로는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의 출판상황과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 1991년과 직전-직후의 담론과 차이, 서사 생산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겠다.

## 2. 대중서사화의 확대와 반복 재생산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생산된 일본군‘위안부’ 서사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대중서사를 통해 재생산되면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스테레오 타입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sup>8)</sup>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을 전후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서사들이 많이 생산되었지만, 대체적으로 대중의 흥미를 끄는 이른바 ‘대중서사물’이었으며, 이러한 대중서사물은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대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중서사를 제외하고 1982년에 출간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대표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외에는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며 ‘서사의 부재(不在)’로 논의하여 왔다.<sup>9)</sup>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전 배봉기, 노수복, 배옥수의 등장과 서사화에 주목하고 있는 이지은의 논의<sup>10)</sup>는 학계에서 ‘서사의 부재’로 논의해 왔던 1991년 김학순 증언 이전의 서사를 발굴하고 대중여성 잡지에서 이들을 어떻게 서사화하였는지 분석하는 중요한 연구이다. 또한 배하은은 임종국의 『정신대실록』(1981)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재현이 민족·남성의 주체화 메커니즘을 드러내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sup>11)</sup> 1991년 이전의 일본군‘위안부’ 소설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소설은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인데, 이지은은 그 개작 양상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민족 문제와 아들의 이야기를 역사화하고 있음을 밝혔다.<sup>12)</sup>

8) 장수희, 「일본군‘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19면.

9) 김소륜,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 제77집, 2018, 306면.

10) 이지은, 앞의 논문.

11) 배하은, 「후기 식민주의 민족-남성 주체 수립의 기획 속 ‘위안부’ 재현 연구(1): 임종국의 『정신대실록』과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권, 2021, 289면.

이처럼 특정 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일본군‘위안부’ 서사로 다루어 지지 않아 ‘서사의 부재’라고 논의되던 시기인 1991년 이전 시기에 오히려 대중소설 속에서는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텍스트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다. 아래의 <표 1>에서 나타나듯 1970년대 후반에 『일간스포츠』(1975-1981)에 연재되었던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와 『주간조선』(1979-1981)에 연재되었던 『노다지』<sup>13)</sup> 이후로도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통속소설들이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었다. 이처럼 ‘문단’과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일본군‘위안부’ 통속소설이 끊임없이 생산되었다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한 징후이기도 하다.<sup>14)</sup>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군‘위안부’ 통속소설의 출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1980-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통속소설<sup>15)</sup>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백우암	환향녀	민성사	1980
백우암	피둥우리	국문출판사	1981
정현웅	잃어버린 강	행림출판사	1989
허문순	분노의 벽	자유시대사	1989
백우암	여자 정신대	청담문학사	1989
송길한	명자 아끼꼬 쓰나	전원문화사	1992
백우암	조선여자 정신대	민성사	1992
허문순	여자정신대	자유시대사	1992
성병오	은하에 잠긴 별	해성	1993
윤산	만연산	쟁기	1994
장재영	태양의 몰락	열매	1994

12) 이지은,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의 구성과 작동 방식-윤정도, 「에미이름은 조센베였다」의 최초 판본과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 no.47, 2019.

13) 배경렬, 「선우휘의 <노다지>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6권 26집, 2005, 109면.

14) 장수희, 앞의 논문, 132면.

15) 장수희, 「일본군‘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66면 <표 17>을 수정 보완.

허문열	일본의 여자 한국의 여자	신라원	1996
한정영	그에 관한 몇 가지 추측에 대하여	앞선책	1997
정현웅	그대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	대산출판사	1999

이 시기 생산, 유통되었던 통속소설들은 조선인 여성이 일본군‘위안부’로 가기 전의 상황—위안소에서 경험—해방 이후로 이어지는 전형화된 서사를 반복 재생산했다. 먼저, <표1>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가의 이름은 백우암이다. 백우암은 1980년 『환향녀』라는 작품을 쓴다. 성매매집결지의 50대 여자 포주 ‘싼타마’와 아시아태평양 시기 중국의 전쟁터에서 겪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경험, 그리고 70년대인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성매수자들과 젊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다. 백우암은 1981년에 버마 전쟁터의 일본군‘위안부’가 주인공인 『피동우리』라는 작품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후 『환향녀』와 『피동우리』를 묶어서 1989년에 두 권짜리 『여자정신대』로 재출간하고, 이 내용을 다시 1992년에 『조선여자정신대』로 재출간한다. 한 작가가 1980년과 1981년에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작품을 발표하고 그 내용이 9년 후 재출간되는 그 사이에 1982년 『레이디 경향』(No.9)에 이남님의 수기가 실린다. 즉 ‘대중소설’로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적극적으로 유통되던 배경 하에서 이남님의 수기가 대중여성매체에 실리게 되면서 그의 ‘수기’는 ‘증언’의 맥락이 아닌 통속적인 ‘대중서사물’의 독법으로 대중들에게 읽히게 되었던 것이다.<sup>16)</sup>

16) 스피박의 ‘서발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본군‘위안부’였음을 밝히게 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의 맥락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 한일 간의 정치적 외교적 상황, 그리고 한일 기생관광 반대 운동과 여성운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조사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또한 김학순의 ‘증언’은 역사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연구와 운동을 통해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재평가 되어 왔다. 한편, 김학순의 증언을 “대중”은 어떤 맥락 속에서 받아들였을까. “대중서사는 당대의 지배적인 담론과 대중의 욕망이 투사되어 생산된다.”(김예니, 「대중서사 속 ‘클리셰’의 변화양상 - 로맨스 웹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42집, 2022, 13면)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대중서사가 김학순의 증언 이



이남님은 전라남도 승주군 출신으로 친구인 박순단과 함께 월급 40원의 군복 만드는 공장으로 가게 되는 줄 알고 ‘정신대’로 가게 된다. 그러나 남님이 부산에서 배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버마의 위안소였다. 전쟁 이후에는 ‘랭구운’ 교외의 억류소에 있다가 싱가포르에서 송환선을 타고 1946년 7월 중순에 부산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가지 못했던 남님은 식당과 술집에서 일하다가 만난 남자와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같이 사는데, 일본군‘위안부’였다는 과거 때문에 갈라서게 된다. 혼자 청주에서 대꽃집을 차리고 살고 있었던 남님은 “꼭꼭 숨어서 살다 내 육신과 함께 비밀로 땅 속에 묻어 버리려 했는데 내 과거가 탄로나, 이렇게 여기에 털어놓게 된 것이다”<sup>17)</sup>라며 수기를 끝맺는다.

이처럼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전에 이미 통속소설과 여성대중잡지에 서는 계속해서 이른바 ‘정신대’(일본군‘위안부’) 서사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하여 일본군‘위안부’의 수기와 증언은 ‘대중서사’라는 맥락 위에서 읽히게 되었고 계속해서 ‘흥미거리’로 재생산되었다. 이는 이남님의 수기가 게재된 2년 후에 여성대중잡지가 일본군‘위안부’를 취재하며 ‘특종 경쟁’을 벌인 것에서도 엿보인다. 1984년, 태국에 살던 노수복이 한국대사관을 찾아가고, 가족상봉을 하자, 여성대중잡지는 ‘특종 경쟁’을 벌이며 서울에 살고 있던 배옥수를 “발굴”하여 취재했던 것이다.<sup>18)</sup>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이지은은 『여성중앙』 1982년 9월호에 실린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와 1984년 4월 『여성중앙』의 노수복 취재기사 「나는 지옥의 조센삐였다」의 서사와 삽화 분석을 통해 대중서사가 어떻게 반복 재생산되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미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었다면 이는 김학순의 증언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맥락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를 살펴보는 일은 증언을 전후하여 어떤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당시 대중들에게 익숙했는지,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 발화될 때 대중들이 어떠한 서사를 떠올렸을지를 추측해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17) 이남님, 앞의 글, 107면.

18) 이지은,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와 귀향의 거부/실패」, 368면.

고 있는지를 지적한 바 있다.<sup>19)</sup>

대중서사의 반복 재생산의 다른 양상으로서 대중소설의 반복 재출간 양상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백우암은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작품을 쓴 후 제목을 바꾸어 3번에 걸쳐 재출간하였는데, 이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대중소설 작가들에게 특별한 사례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1989년 백우암의 『여자정신대』와 같은 시기에 출판된 정현웅의 『잃어버린 강』과 허문순의 『분노의 벽』도 비슷한 출판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현웅의 경우, 1989년 『잃어버린 강』 이후, 1999년 『그대 아직도 거기 있는가』로, 2014년 『일본군 위안부』로 재출간 했다. 허문순도 1989년 『분노의 벽』 이후, 1992년 『여자정신대』로, 1996년 『일본의 여자 한국의 여자』로 다시 출간되었다. 1989년 백우암과 정현웅, 허문순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소설이 대거 발표되자 당시 이 소설들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기사가 있어 인용한다.

최근 서점가에 정신대를 다룬 장편소설들이 앞을 다투어 등장했다. 정현웅의 〈잃어버린 강〉, 허문순의 〈분노의 벽〉이 나란히 출간됐고 앞서 나온 백우암의 〈여자정신대〉까지 합하면 정신대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은 3종이다. (중략) 그리고 당대의 엄혹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개연성있는 인물들을 설정하고 인물들간의 비켜가기 어려운 관계를 드러내는 최소한의 문학적 배려도 없이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성학대'라는 형식을 빌려 시종 가학적 성유희에 대한 외설스런 묘사로 일관하고 있다. 일약 사령관 부인으로 발탁되는 한 미색의 위안부의 '활약상'은 이 '역사소설'에서 '역사적 개연성'을 철저히 제거해냄으로써 명실공히 포르노소설로 임지케 해주는 비상식적인 장치일 따름이다.<sup>20)</sup>

19) 같은 논문, 382면 참조.

20) 조선희, 「민족수난 상징을 선정주의 소재로」, 『한겨레』, 1989. 5. 26.

이 기사는 1989년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활발한 서사 생산이 역사 의식과 인권의 인식을 이끌어내는 내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역사적 개연성을 삭제한 “포르노소설”의 소재로서의 일본군‘위안부’를 활용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즉, 소재화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대중서사 생산이 오히려 “포르노”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대중소설이 출판 시스템을 통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변함없이 생산되어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에는 이러한 일본군‘위안부’ 대중소설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외국어로 발표된 일본군‘위안부’ 소설 번역과 어린이청소년용 일본군‘위안부’ 소설이 출판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990년대에는 일본군‘위안부’ 대중소설의 유통이 상당했음을 드러낸다.<sup>21)</sup>

이러한 양상은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확장시키는 제국주의와 전쟁 중 생겨난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산업화 시대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어떻게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 하고, 자기복제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과 팽창의 시기에 고양될 필요가 있었던 호전적 민족주의의 외세의 성적 침해이기도 한 일본군‘위안부’ 서사를 통해 한층 강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증언을 전후하여 다량 생산, 유통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가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래 있는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일이 의미하는 것, “한국현대소설의 장(場) 안에서”<sup>22)</sup>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져온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은 일본군‘위안부’ 대중소설의 서문들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21) 장수희, 앞의 논문, 134면.

22) 김소륜, 앞의 논문, 306면.

### 3. 성애화된 민족과 문학적 보복의 효과

1980년대 이후 생산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대중소설들은 제목을 바꾸어 여러 차례 재출간되고, 대중여성매체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수기와 취재를 '독점 게재'하거나 '특종 취재'를 하며 다루어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서사는 '증언'이라는 맥락이 아닌 대중적인 흥미거리로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대중소설들이 재출간될 때에는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흥미거리'에서 나아가 작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기입이 시도되기도 했다.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대중소설의 저자들은 서문에서 자신들이 소설을 집필하면서 얼마나 큰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임했는지를 밝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명감'과 '정의감'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대중적 '흥미거리'라는 맥락과 결합하면서 '민족적인 징벌'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제시한 일본군'위안부' 통속소설의 목록에서 백우암과 정현웅, 그리고 허문순을 제외한 다른 작품들을 잠시 살펴보자. 1993년 발표된 성병호의 『은하에 잠긴 별』에는 일본군 군의(軍醫)였던 학병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일본군'위안부'였던 한 어머니가 환자로 내원하게 된다. 그 환자의 딸은 일본인의 현지처로 살아가고 있다.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본군 군의(軍醫) 경험을 더하여 소설을 쓴다. 환자의 딸은 의사의 소설을 읽고 어머니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의사가 일본군'위안부'의 내력을 소설로 집필하는 것을 통해 '일본인의 현지처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 딸을 계몽하는 동시에 그 딸과 자신의 성관계는 낭만적으로 서술하는 점이다. 즉 이 작품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역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민족을 잊고 타락한 젊은 여성을 계몽하는 것이다. 식민지 남성이었던 조선인 군의는 일본인의 현지처가 된 같은 민족 여성의 몸을 폄하하고, 성적 환상 속에서 제국의 남성 자리에 다시 스스로를 세운다. 이런 착종되고 분열된 식민지 남성의

민족주의는 1980년대 1990년대 대중소설을 관통하고 있다.

1994년에 출판된 소설 윤산의 『만연산』과 장재영의 『태양의 몰락』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복수로서 일본인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내용이다. 『만연산』은 일본인 여성을 조선인 여성으로 키워 일본인 친부 앞에 정신대원으로 서게 하고, 『태양의 몰락』에서는 “중군위안부 출신 어머니를 둔 주인공이 일본 왕세자비를 납치해 테러 강간하며 복수극을 펼친”<sup>23)</sup>다. 이러한 구조는 민족의 여성으로 대표되는 존재를 능욕하고 지배하는 남성적 민족주의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역시 제국주의 남성의 자리에 그대로 서려고 하는 피식민 남성주체의 공모를 드러낸다.

1997년 출판된 한정영의 『그에 관한 몇 가지 추측에 대하여』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니의 과거를 괴로워하다가 실종된 애인을 찾는 주인공의 추적을 통해 역사적 상처를 되짚어 본 소설”<sup>24)</sup>로 추리소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를 묻는다.

앞선 백우암과 정현웅, 허문순의 소설처럼 이들 소설에서는 일제가 얼마나 조선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선인 여성들의 성폭력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핍박받고 억압받은 민족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여성혐오적 서술 방법을 사용하는 알리바이는 이들 소설 ‘머릿말’에 사명감을 드러내며 실려 있다.

『분노의 벽』을 쓴 허문순의 ‘작가의 말’에는 80년대 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려겠다는 사명감이 드러난다. 한편으로 포르노그래피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소설은 자칫 상상이 비약하여 픽션이 너무 강조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약점이다. 노력을 기울리하면 우리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비참하게 농락

23) 「브로커 증권사 직원이 쓴 추리소설」, 『매일경제』, 1997. 1. 14.

24) 「그에 관한 몇 가지 추측에 대하여」, 『한겨레』, 1997. 1. 7.

당하는 포르노그래피적 에피소드의 모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내가 ‘조선정신대’ 이야기를 쓰리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은 행위의 묘사에만 치우쳐 삼류 포르노 소설로 전락하는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어쩔 수 없이 ‘잔학 포르노’의 틀이 갖추어지겠지만, 그것으로 시종한다면 집필의 의의가 하나도 없다. 적어도 ‘실사적(實史的) 잔혹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실사적 위안부 이야기가 되려면 참고될 문헌이 있을 때 그 구성이 가능한데 문헌이 없다. 문헌이 없으니 의욕은 있어도 붓을 들 수가 없었다.

소재로만 쓴다면 별로 어렵지 않다. 능욕하는 쪽 남자와 당하는 쪽 여자의 접촉 행위는 그 당사자 이외엔 쉽게 알 길이 없어 상상력만 동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쓸 바에는 쓰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서 몇 번 유혹을 느끼다가도 붓을 놓곤 했다.

재료, 재료, 하고 안타깝게 찾던 중, 드디어 살아있는 증언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모아 거의 객관적으로 엮은 귀중한 자료를 발견하여 힘을 얻었다. 그 뒤 몇 해 동안 자료 수집, 드디어 이제는 밀도 있는 실사적 작품을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붓을 들어, 1년만에 하나의 실록 소설의 모습을 갖추어 놓을 수 있었다.<sup>25)</sup>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지점은 “어쩔 수 없이 ‘잔학 포르노’의 틀이 갖추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포르노그래피적 에피소드’와 차이를 갖게 되는 지점을 “실사(實史)적 잔혹 이야기”라는 점에 둔다는 것이다. 즉 “실사적”인 ‘잔학 포르노’라면 그것은 단순한 “삼류 포르노 소설”이 아닌 ‘사명감’과 ‘정의감’을 구현한 작품으로 거듭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여 작가는 “능욕하는 쪽 남자와 당하는 쪽 여자의 접촉 행위”를 “상상력만 동원”해서 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으나, “그렇게 쓸 바에는 쓰지 않는 편이 낫다”고 밝힌다. “상상력”으로 쓰는 “능

25) 허문순, 「작가의 말」, 『여자정신대』, 자유시대사, 1992, 7-8면.

욕”은 “삼류 포르노 소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반전시켜 주는 수단으로 “살아있는 증언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동원된다. 즉 작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의 ‘증언’은 “잔학 포르노”에 “실사적”이라는 면을 더해지면서 “실록 소설”로 거듭나게 하는 장치일 뿐이다.

이와 같이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민족이 일본 제국에 억압당한 비극적 역사로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정의로운 의도를 밝힌 ‘머릿말’을 쓰고 있지만, 이를 배반하는 성애화된 내용이기 일쑤였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사회에 만연해 있던 여성혐오적 문화와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일본 제국과 군대의 조선인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라는 ‘가해’를 잘 드러내게 하겠다는 의지가 성애화된 대상으로서의 ‘민족의’ 여성을 그려내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작가 스스로가 여성혐오적 인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가 자신조차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적 시선을 구현하는데 공모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서사 자체가 당시 한국사회의 젠더 인식의 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수치스럽다고 해서 피하거나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웃 마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할머니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구상은 그러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중략)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분노했고, 여러 번 키보드에서 손을 놓을 만큼 몸이 떨렸다. 넘치는 슬픔과 분노로 소설을 썼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sup>27)</sup>

26) 장수희, 앞의 논문, 137면.

27) 정현웅, 「작가의 말」, 『그대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 대산출판사, 1999, 5~7면.

정현웅에 의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들의 피해 경험은 작가의 ‘슬픔과 분노’로 치환되어 소설화되었다고 서술된다. 이러한 서술에서 물어야 할 것은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주체는 누구인가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나일 것이다.<sup>28)</sup> 민족의 남성 주체로서 감각하게 되는 ‘수치스러움’과 타자화된 민족의 여성에 대한 ‘수치스러움’에 대한 감각은 다른 일본군‘위안부’ 소설들의 「작가의 말」에도 나타난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처절하게 찢기는 한 일본 여성을 그렸는데 이야기의 초점은 저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맞추기 위하여 전쟁을 주도하고, 후지산을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후지모리가의 우두머리인 하요시의 세 살 난 딸 유끼꼬를 등장시켜 나가사끼항에서 실종, 여수로 떠나는 배에 승선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화순 장터로 데려와 조선인 봉애로 성장하게 하였고 20년이 흐른 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인 하요시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책임자로 가 있는 중국 공작지의 정신대원으로 보내어 아버지 하요시 앞에서 옷을 벗기고 처절하게 몸이 찢겨가는 작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일본의 침략에 대한 나의 보복이 그녀에게 가해진 것인지 모른다.<sup>29)</sup>

『만연산』의 작가 윤산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문학적 ‘보복’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민족 주체로 화한 남성작가가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체현한 채 전쟁 중의 여성 성폭력을 ‘무기화’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일본의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서사로 가해했음을 서술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작가 스스로도 ‘성폭력’이라는 무기로 여성을 서사적으로 가해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작가의

---

28) 장수희, 앞의 논문, 137면.

29) 윤산, 「작가의 말」, 『만연산』, 쟁기, 1994, 45면.



의도와는 다르겠지만 제국 일본 남성이 조선인 여성을 성적으로 가해했던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구조와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중군 위안부의 고통을 아는가?

그들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파괴되어 갔는지를 아는가?

이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일 뿐이다. 작가의 상상력이 빚어낸 창조적인 허구의 세계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중군 위안부의 고통과 한을 가해자 측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왔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이대로 덮어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었다.<sup>30)</sup>

독자들을 향해 “당신은 중군 위안부의 고통을 아는가? 그들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파괴되어 갔는지를 아는가?”라고 묻고 있는 소설 『태양의 몰락』의 작가 장재영은 “비극을 이대로 덮어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소설을 집필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의 고통과 한을 가해자측에 “고스란히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하면서, 소설 속에서 일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설명한다. 내 민족이 아닌 여성이라면, 내 가족이 아닌 여성이라면 성폭력의 대상으로 언제든 화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 1990년대 대중소설 속에서 자주 드러난다. 이는 더이상 식민지 남성이 아니라는 감각이 민족의 해방과 함께 가부장적 여성인식의 해방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족의 해방은 더 이상 식민지 남성이 아니라는 감각을 열어주었으나 가부장적 여성 인식의 해방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더 이상 식민지의 남성이 아니게 된 민족의 아들들은 제국 남성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존재를 가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남성 민족 주체로 치환되었다. 하여 작가가 제기한 “당신은 중군 위안부의 고통을 아는가?”라는 질문에서 중요

30) 장재영, 「작가의 말」, 『태양의 몰락』, 열매, 1994, 5면.

한 것은 ‘중군 위안부의 고통’이 아니라, “당신은-아는가?”라고 묻는 자의 위치이다. 남성 민족 주체가 타인들에게 “당신은-아는가?”라는 질문을 준엄하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는 것에는 그것을 알고 결정하는 자 역시 자신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그리하여 “중군 위안부의 고통”은 식민지 이후의 민족 주체의 결속을 위해 전유되며, 이것이 결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여 “당신은 중군 위안부의 고통을 아는가?”라는 질문은 작가 자신이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물어야 하는 질문<sup>31)</sup>이었던 것이다.

#### 4. 성폭력 시스템의 당대적 인식

1982년 8월 23일 발간된 『레이디 경향』(No.9)에는 “정신대” 여성과 기치촌 여성의 사연이 각각 다른 코너에 실려 있다. 각각 다르게 배치되어 일본 제국에 의한 성적 침해와 한국전쟁 이후의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를 관련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민족에 의한 성적 침해라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이에 더해 1960년대 이후 일본인 관광객의 증가와 그에 따른 기생관광 또한 ‘이민족에 의한 성적 침해’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부 주도의 기생관광과 성매매 여성의 증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소설 속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대중소설 속 일본군‘위안부’ 서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속에서 개인적인 피해, 혹은 민족의 피해와 수난의 상징으로서 일본군‘위안부’가 그려지고 있다.

한편으로 1965년 이후 당대의 기생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과 성매매 여성, 일본인의 ‘현지처’인 한국인 여성을 일본군‘위안부’와 서

---

31) 장수희, 앞의 논문, 138면.

사적으로 연관시키며 소설이 생산되는 것은 2000년 이후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역사교육에 중점을 둔 어린이청소년 소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소설, 유엔 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전쟁범죄'와 전후 처리 문제, '성노예 범죄'로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집중하는 소설이 생산되고 당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문제, 국가 주도의 성산업화 속의 여성들의 이야기는 일본군'위안부' 이야기와는 별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라는 피해는 식민지 시기 제국 일본에 의해 조선인 여성에게 일어났던 일일 뿐, 현재의 한국인 성매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서술된다. 일본인을 상대하는 일본인의 '현지처'나 기생관광은 과거 식민지 시기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되지만, 1980년대 성매매 집결지를 찾는 한국 남성들의 가해자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흐름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과거' 식민지 시기만의 문제, 혹은 미군 기지촌 성매매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만 주로 다루어져, 한국인 성매매 문제와 한국사회의 성폭력 구조와 연관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가령, 『은하에 잠긴 별』 속 모녀는 일본군'위안부'였던 어머니와 일본인의 현지처인 딸로 '일본'이라는 외국의 한국에 대한 성적 침해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지만, 한국인 남성의 한국인 여성에 대한 성적 관계는 쉽게 낭만화되거나 성적 폭력의 가해자로 드러나지 않는다.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에 이어진 작품인 『여우 소녀』에서는 일본군'위안부'였던 어머니 세대와 미군'위안부'가 된 딸 세대를 그리고 있다. 일본군, 미군이 세대를 걸쳐 성적 침해와 젠더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하지만, 이러한 서사들 속에서 한국인 남성, 한국군의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 서사는 최소화되거나 사라진다.

백우암의 『환향녀』는 일본군'위안부'였던 포주 '짚타마'의 이야기이다.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포주인 '짚타마'

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50세 이상의 일본인들 중 전쟁 중 군인이나 경찰을 했던 사람들을 찾으면 알려달라고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포주인 ‘짚타마’가 일본군‘위안부’였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짚타마’는 일본군대에서 일본 군인에게, 전쟁이 끝난 후에 러시아 군인에게, 미군에게 가해 주체만 바뀐 채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어 오다 말년에 ‘포주’가 된 사람이었다. 일본군‘위안부’였던 ‘짚타마’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성매매 여성들은 ‘짚타마’의 사연을 안타까워하며 복수를 돕기 위해 나선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성매매 여성을 찾은 군인 출신 일본인 남성에게 복수한다. 복수 이후 ‘짚타마’를 찾아온 경찰들은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 짚타마를 바라본다. “그녀는 자기를 벌줄 사람이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들이댔비슷 물었”고, 경찰관은 “말을 잃고 있었다.”며 소설은 끝난다.

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대 속에서 가해자만 바뀌는 성폭력 시스템 속을 평생 살아온 ‘짚타마’라는 인물이 해방된 한국에서도 여전히 성폭력 시스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소설 속에서도 물어지지 않는다.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그 속에 내장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교차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향방은 성애화된 젠더폭력의 서사와 개인적 복수의 반복, 젠더 폭력의 대물림으로 끝나버린다.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여성들-한국전쟁의 한국군‘위안부’들, 기생관광의 여성들, 80년대 성산업화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 미군‘위안부’들이 분리되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한국사회에 성폭력 시스템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되었는지, 대중서사가 때로는 민족과, 때로는 자본과, 때로는 가부장제와 결탁하며 어떻게 반복 재생산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더 많은 대중서사에 대한 분석과 관심, 대중소설이 여성을 위치시키고 호출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속에서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대중서사가 만들어낸 서사적 틀은 이후 반복해서 재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논의되지 못했다.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에 대한 비판과 논의 없음은 90년대 이후, 한국현대소설의 장(場)에 일본군 ‘위안부’ 서사 작품이 없었던 것처럼 논의되게 했던 것이다. 이는 “서사의 부재”라기보다 일본군‘위안부’ 서사에 대한 분석과 “비판의 부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 5. 나오는 말

이 논문에서는 김학순의 증언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대중소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중들의 앞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일본군‘위안부’의 서사가 어떻게 시대와 결합하며 만들어져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도 했다.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흥미거리’도 되었다가, ‘민족을 위한’ ‘정의감’과 ‘사명감’을 띤 이야기로도 나타나며, 때로는 성애적인 상업성과도 결합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를 대중들과 작품 생산자인 작가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배제하며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사의 부재’로 얘기되어 왔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생산된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를 목록화하여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가 반복,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서사를 생산한 작가들의 ‘서문’을 통해 당대 작가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젠더 감각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추적하여, 일본군‘위안부’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대중적인 것’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가 만들어낸 서사적 틀은 이후 반복해서 재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에 대한 비판과 논의 없음은

1990년대 이후, 한국현대소설의 장(場)에 일본군'위안부' 서사 작품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되었는데, 이는 “서사의 부재”라기보다 “비판의 부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증언을 전후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가 당대의 기생관광과 성산업의 확대, 미군 기지촌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의 관계성 속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관계성이 드러나는 소설들은 줄어들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후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2000년 여성전범법정을 준비하면서 성노예라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이러한 범죄 피해의 서사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다시 기생관광과 성산업, 미군 기지촌 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 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 백우암, 『환향녀』, 민성사, 1980.
- 백우암, 『피동우리』, 국문출판사, 1981.
- 정현웅, 『잃어버린 강』, 행림출판사, 1989.
- 허문순, 『분노의 벽』, 자유시대사, 1989.
- 백우암, 『여자 정신대』, 청담문학사, 1989.
- 송길한, 『명자 아끼꼬 쏘냐』, 전원문화사, 1992.
- 백우암, 『조선여자 정신대』, 민성사, 1992.
- 허문순, 『여자정신대』, 자유시대사, 1992.
- 성병오, 『은하에 잠긴 별』, 해성, 1993.
- 윤산, 『만연산』, 쟁기, 1994.
- 장재영, 『태양의 몰락』, 열매, 1994.
- 허문열, 『일본의 여자 한국의 여자』, 신라원, 1996.
- 한정영, 『그에 관한 몇 가지 추측에 대하여』, 앞선책, 1997.
- 정현웅, 『그대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 대산출판사, 1999.
- 「여성讀」, 『매일경제』, 1982. 9. 2.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매일경제』, 1982. 6. 21.
- 조선희, 「민족수난 상징을 선정주의 소재로」, 『한겨레』, 1989. 5. 26.
- 「브로커 증권사 직원이 쓴 추리소설」, 『매일경제』, 1997. 1. 14.
- 「그에 관한 몇 가지 추측에 대하여」, 『한겨레』, 1997. 1. 7.
- 이남님, 「독점수기/나는 일본군의挺身隊였다-일본군은 내 젊음을 이렇게 짓밟았다」, 『레이디 경향』(No.9), 1982. 8. 23.
- 이지은,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와 귀향의 거부/실패」, 『사이』 28권28호, 2020, 367-402면.
- 이지은,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의 구성과 작동 방식-윤정모,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최초 판본과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 no.47, 2019, 379-409면.
- 장수희, 「일본군‘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 ‘북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소륜,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 제77집, 2018, 303-326면.
- 김예니, 「대중서사 속 '클리셰'의 변화양상」, 『돈암어문학』 제42집, 2022, 7-35면.
- 배경렬, 「선우휘의 〈노다지〉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6권 26집, 2005, 109-126면.
- 배하은, 「후기 식민주의 민족-남성 주체 수립의 기획 속 '위안부' 재현 연구(1): 임종국의 『정신대실록』과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권, 2021, 263-299면.
- 린 헛트,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책세상, 1996.



<Abstract>

## A Study on the Popular Narrativ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Before and After the Testimonies

Jang, Soohy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ublic manifestation of the popular fictions abou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Kim Hak-soon's testimony, which may also identify how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 constructed in conjunction with the times.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s been once presented as “interesting,” but also as a narrative of “sense of justice” and “mission” for the “national people,” sometimes combined with sexualized commercialization.

It is also explored how the public's acceptance or exclus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haped their images. The popular narratives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roduced in the 1980s and 1990s demonstrated how certain narratives were repeatedly expandingly reproduc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prefaces' of the authors who produced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t is traced how their perceptions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re revealed in their works, and how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re being reconstructed as 'public' materials in Korean society.

Key words: Popular Narrativ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Before

and After the Testimony, 1980s, 1990s

투 고 일: 2024년 2월 25일

심 사 일: 2024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2일

수정마감일: 2024년 3월 25일